

가로수의 관리와 선정



박형순
임업연구원 임목육종부

가로수는 옛부터 도로의 푸르름이라 하여 보행자에게 실용적인 그늘을 제공하고 지역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형성해 왔지만, 그 양과 질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없었다. 도시가로수의 본수는 그 도시의 도시계획과 도로와 보도 폭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도시의 자연경관에 관한 문화수준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 있다

가로수의 기능에는 녹음제공, 공기정화, 방풍, 방화 등 여러 가지 실용적인 것이 있지만, 기본적인 것으로는 생활환경의 미화와 쾌적성(anenity)의 증대에 있으며, 지역의 특성과 향수와 낭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1. 가로수 기본 수형 유지를 위한 선정방법

가로수는 자연형을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로수의 식재 경관, 수종을 감안하여 목표로 삼는 그 기본 수형과 적용 수형을 그 지역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가로수의 수형을 모식도로 나타내면 표1과 같다

가로수는 매년 또는 격년에 1회 선정 하거나 3-4년마다 1회

해야하는 수종이 있는가하면 동기에 선정하는 수종 또는 하절기에 선정하는 수종이 있다. 선정을 할 때는 나무의 수형에 따라 다르지만 통풍이 잘되고 전선줄의 방해가 되지 않게 가지를 속아내어야 하며 앞으로는 도시에서 가로수는 미적으로 한 폭의 그림처럼 관리하여야한다. 예를 들면 공항이나 관청에 들어가는 입구는 수중에

표1. 수종별 자연수형 형태

도형	기본수형	적용수종
원추형 圓錐形	40% 70% 30%	은행나무, 자작나무, 층층나무, 일본목련, 향나무, 화백, 스트로브잣나무, 히말라야시다, 화백, 낙우송, 잣나무, 메타세콰이아, 칠엽수, 튜립나무, 잣나무, 삼나무, 해송
원정형 圓頂形	40% 60% 40%	플라타너스, 피나무, 가중나무, 현사시, 벽오동, 이팝나무, 녹나무, 비자나무, 동백나무, 느릅나무, 서어나무, 구실잣밤나무, 아광나무, 먼나무, 무궁화 등
평정형 平頂形	60% 60% 40%	느티나무, 단풍나무, 뱃나무, 팽나무, 배롱나무, 산딸나무, 쉬나무 등
선형 線形	110% 50% 50%	계수나무, 자귀나무, 꽃사과나무 등
원통형 圓筒形	50% 80% 20%	이태리포플러, 노각나무, 중국단풍 등
하수형 下垂形	20% 80% 20%	수양버들, 수양뱃나무, 수양회화나무, 수양느릅나무, 수양단풍 등
구형 球形	50% 50% 50%	아까시아, 후박나무, 담팔수, 가시나무, 회화나무, 파라칸사, 회양목, 동백, 반송, 수국 등

맞게 전정을 하여 정리되어져야 한다. 표로 전정 시기를 간단히 나타내면 표2와 같다

2. 불요지(不要枝) 전지방법(剪枝方法)

가로수를 기본 수형으로 정비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불필요한 가지를 전정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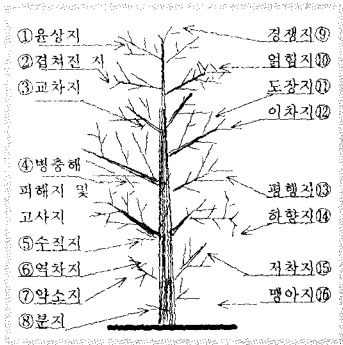


그림1. 전지 대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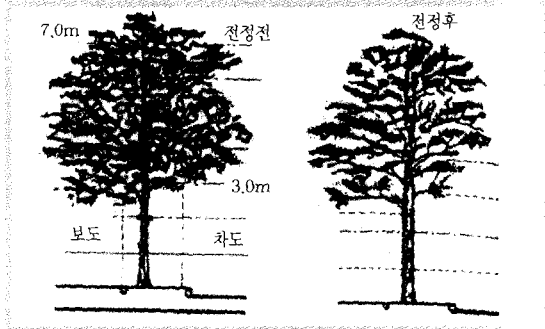


그림2. 전정전과 전정후 비교



▲향나무와 은행나무의 가로수



▲포지에서서 쥐똥나무의 수벽

표2 주요 가로수종의 전정시기

시기 \ 년	매년 전정	매년 또는 격년 전정	3~4년마다 전정
동기 전정 (혹한기제외)	플라타너스 아카시아 미루나무 현사시 능수버들	은행나무 단풍나무 회화나무 튜립나무 철엽수 벚나무 가시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 녹나무 동백나무 향나무류 소나무류 메타세쿼이아
하계전정	플라타너스 버드나무류		백오동

① 윤상지(輪狀枝): 수간과 같은 방향으로 차운상(車輪狀)으로 나온 가지

② 겹쳐진 지: 특정부위에서 불균등하게 나온 가지

③ 교차지(交叉枝): 다른 가지와 교차되어 있는 가지

④ 병충해 피해지, 고지(枯枝): 병해로 회복의 가망성이 없는 가지, 방치하면 피해가 증대하는 가지 및 고사목

⑤ 수직지(垂直枝): 가지의 일부에서 직립한 가지

⑥ 역차지(逆叉枝): 가지는 보통 외부로 향하여 자라나 때로는 내부로 향하는 것이 있다. 이것을 역차지라 함.

⑦ 분지(分枝): 수목의 지체부(地際部)에서 맹아한 가지

⑧ 약소지(弱小枝): 더 이상 성장가능성이 없고 불필요한 가지

⑨ 경쟁지(競쟁枝): 주간(主幹)의 선단에서 다른 가지와 대항하듯이 자라는 가지

⑩ 얽힘지: 주된 가지에 얽혀서 성장하는 가지

⑪ 도장지(徒長枝): 당년생 가지 중 다른 것과 비교하여 특히 자란 가지

⑫ 이차지(二叉枝): 같은 굵기로 둘로 나누어지고 있는 가지

⑬ 평행지(平行枝): 한 가지에 대하여 동일방향으로 자라나는 가지

⑭ 하향지(下向枝): 아래 방향으로 자란 가지

⑮ 저착지(低着枝): 통행에 장애가 되는 낮은 위치에 난 가지

⑯ 맹아지(萌芽枝): 주간에서 맹아한 가지

수목이 성장하고 생육하려면 자연환경이 주어지는 조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오랜세월 이 흐름에 따라 수형형성에 주축이 될 줄기는 자연에 적응할 만한 편리한 형태로 진화되어 가로수 로써의 고유의 특성에 맞게 적응되어야 하며 그 예로써 은행나무나 벚나무 등은 뚜렷한 줄기를 갖는 교목형태로 변했고 철쭉과 싸리처럼 근경부에서 갈라져 나온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은 관목형태로 변한 것도 있다. 이들은 다시 교목을 교목형태로써의 특성을 지닌 여러가지 수형으로 유도 되어져야 한다.

3. 불균형으로 인한 미관손상

수목의 개체, 혹은 토양조건 등의 차이에 의하여 착화량, 신

록, 단풍등이 불균형하게 발생하여 가로수의 전체적인 미관을 손상하게 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예방책

토양개량, 객토, 시비 등 적절한 녹화기반 개선으로 식물생리상의 문제를 개량하되 근



▲ 잘 정리된 은행나무 가로수

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시비한다.

① 비료의 종류

장기간의 분해흡수를 위하여 지효성 비료인 고품복합비료 유기질비료 등을 시비한다.

② 시비시기

11-2월에 시비하나 관목 등의 수세 회복을 위하여는 개화 후 NPK의 배분이 비슷한 속효성화학비료를 시비한다. 그러나 늦가을에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면 동해를 입기 쉬우므로 유의해야 한다. 봄에 일찍이엽을 우거지게 할 때에는 3-4월의 개화기에 질소질 비료를 시비한다.

③ 시비위치

수관선 수직 하에 5cm 깊이의 시비구를 파고 비료를 넣고 흙으로 덮는다.

4. 보호관리

가로수가 완전한 구비조건을 갖추고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 심겨졌다 할 지라도 식재 후 자연적, 인위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와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서는 가로수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

우리 나라와 같이 수관이 울폐되는 7-8월에 집중호우와 태풍이 많고 가공전선이 많은 곳에서는 태풍 전 하계전정을 하여 도복, 절간 등으로 대목이 손실되는 등 경제적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꼭 인식해야 한다.

이제까지는 가로수를 전정할 때 강전정으로 (포폴러류, 플라타너스) 잘라 버리는데 앞으로는 수종의 수형에 맞게 미리 수고의 높이를 조절하고 이에 맞게 전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로수의 보호관리를 위한 기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조경수**